

TV 3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E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김탄 같은 사랑 하고싶죠”

‘상속자들’서 성숙한 연기 선보인 이민호

게이로 오해받는 ‘까칠남’(MBC ‘개인...’)에서 MIT 박사 출신 청와대 직원 겸 ‘시티헌터’(SBS ‘신의’)까지 다양한 역할에 도전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소라 머리’를 한 구준표(KBS ‘꽃보다 남자’)가 따라다닌다.
최근 종영한 SBS 수목드라마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상속자들’(이하 ‘상속자들’)에서 굴지의 재계그룹 상속자 김탄을 맡아 열연한 이민호를 지난 27일 을지로에서 만났다.
“그동안 구준표의 이미지를 나를 벗었다고 생각했는데 똑같은 설정의 드라마를 해보니 ‘대중에게는 여전히 구준표의 이미지가 많이 남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오히려 ‘상속자들’을 통해 (구준표 이미지를) 많이 벗은 것 같아요.”
이민호는 “모든 걸 내려놓고 연기했다”면서 “설정이나 상황을 넣지 않고 대본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에 충실하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이민호는 김탄을 통해 구준표보다 한층 안정되고 성숙한 연기를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유층 자녀가 다니는 재계고를 배경으로 벌어지는 로맨스를 그린 ‘상속자들’은 25%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해 극 중 결말처럼 ‘해피엔딩’을 맺었다.
이민호는 “드라마의 메시지를 이렇게 크게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김탄 같은 사랑을 하고 싶어요. 다른 상황이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내 감정을 다 표현하고 싶어요.”

그동안은 창피함 때문에 얼마에게도, 팬들에게도 사랑한다는 얘기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소중하고 아까운 사람에게 조금씩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민호는 “김탄 같은 사랑을 하고 싶다”는 말을 인터뷰 내내 수차례 반복했다. 드라마 속 여자 캐릭터 중 이상형을 묻자 “라퀀(김지원 분)처럼 똑부러진 면, 보나(크리스탈 분)처럼 러블리한 면, 은상이(박신혜 분)처럼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면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상속자들’에는 “나 너 좋아하냐”와 같은 소위 ‘오글거리게’ 대사도 많았다.
“대사만 보면 오글거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감정을 대입해 보면 ‘이래서 김은속 작가가님이 대단하구나’ 생각하게 돼요. 대사에 믿음이 가고 가슴에 꽂히는 것 같아요. 돌려 얘기하는 것 없이 바로 가슴에 치고 들어오는 직설적인 대사들이죠.”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를 묻자 극 중 김탄의 형 김원(최진혁 분)이 호텔 로비에서 만난 라퀀에게 말한 “사춘기는 나이가 아니라 상황이 만드는 거거든”을 꼽았다.
2011년(‘시티헌터’)과 지난해(‘신의’) 연말 시상식에서 최우수연기상을 받은 그는 “올해도 최우수연기상을 받으면 좋겠다”며 3년 연속 수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나중에 나이를 먹었을 때 후배에게 존경받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어떤 분야에서 인정받고 성공해야만 존경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후배들에게 존경 받는다면 배우로서 이룬 게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연말뉴스



TV 3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E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가온차트 ‘올해 가장 사랑 받은 장르’ 발라드 선정

랩&힙합, OST 공동2위 ... ‘톱50’1위엔 ‘젠들맨’

발라드가 올해 가요계에서 가장 사랑을 받은 장르로 나타났다. 한국 음악콘텐츠산업협회가 운영하는 가온차트가 지난 27일 밝혔다.
가온차트는 1월 1일부터 12월 21일 까지 결산한 디지털 차트 ‘톱 50’의 장르별 점유율 조사 결과 발라드가 1위(26%), 랩&힙합(18%)과 OST/기획음원(18%)이 공동 2위, 아이돌 댄스음악(16%)이 3위로 나타났다. ‘톱 50’에서 1위는 싸이의 ‘젠들맨’이 차지했다.

가온차트 측은 “발라드와 OST 음원은 매년 일정 수준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꾸준히 사랑받는 장르”라며 “올해는 랩&힙합이 18%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큰 성장세를 보였다. 그 결과 여는 해보다 솔림 현상이 완화되며 다 양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톱 50’에서 한 해 동안 사랑받은 발라드는 허각과 유승우가 부른 ‘모노드라마’(7위), 다비치의 ‘거북이’(8위), 다비치의 ‘녹는 중’(10위), 케이윌의 ‘러브 블라썸’(11위), 린의 ‘오늘밤’(17위), 이승철의 ‘마이 러브’(18위) 등이 올랐다.
랩&힙합 장르는 배치기의 ‘눈물 샤워’(2위), 리쌍의 ‘눈물’(5위), 김스의 ‘어때’(27위), 범키의 ‘미친연애’(29위) 등이 진입했다.
아이돌 댄스 음악으로는 씨스타19의 ‘있다 없으니?’(3위), 포미닛의 ‘이름이 뭐예요?’(6위), 씨스타의 ‘기브 잇 투미’(9위) 등으로 나타났다. /연말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30일(음 11월 28일 庚午)

- 36년생 잘 살피자. 48년생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 환이 없겠다. 60년생 한 순간에 일어나는 모습이다. 72년생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84년생 상징적인 의미로 다가서리라.
행운의 숫자 : 67, 61
37년생 고마워 할 일이다. 49년생 차분하게 생각해야 해결점이 보인다. 61년생 앉어치를 따져서 판단할 일이다. 73년생 견고하니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85년생 상당한 자금을 받을 일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01, 93
38년생 미진하다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50년생 쉽게 가능할 수 있느니라. 62년생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4년생 현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행운의 숫자 : 13, 78
39년생 단순한 비교는 착오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51년생 쉽게 눈에 띄는 걸림돌부터 해결하고 볼 일이다. 63년생 알맞은 것을 찾기는 쉽지만 얻는 것을 알라. 75년생 매우 중요하고도 큰일이다.
행운의 숫자 : 94, 14
40년생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부하는 것이 좋다. 52년생 주변에 휩쓸리지 말고 자신의 주권을 갖는 것이 좋겠다. 64년생 변동의 폭이 상당히 클 것이다. 76년생 신념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을 하리라.
행운의 숫자 : 90, 96
41년생 상대의 언행에서 충분히 나타내게 되어 있다. 53년생 원칙만을 따진다면 합의점을 찾기 힘들다. 65년생 현재 상태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최상책이다. 77년생 상공의 문턱으로 들어 서고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27, 55

- 42년생 우선순위를 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다. 54년생 견인발발의 자세로 초치일관한다면 무난할 것이다. 66년생 완벽에 가까운 판국이다. 78년생 전체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행운의 숫자 : 34, 48
43년생 가장 적절한 형태의 조건이 보인다. 55년생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67년생 귀를 기울이고 주의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 79년생 상황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행운의 숫자 : 41, 84
44년생 균형과 질제가 필요하다. 56년생 우선 잘 적응하는 것이 아주 시급하고 중요하다. 68년생 조리에 맞지 않다면 폐기하는 것이 좋다. 80년생 일일이 대응할 가치도 없으니 대범하게 넘겨도 된다.
행운의 숫자 : 73, 07
45년생 일체 재고의 여지가 없으니 미련을 버리는 것이 좋다. 57년생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69년생 상황에 잘 맞추어 나가야 할 때다. 81년생 재물이 즐비하니 취하는 이만이나 임자가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0, 42
46년생 복잡다단한 구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58년생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느니라. 70년생 작은 균열이 보이기 속히 봉합해야 한다. 82년생 다양한 형태의 흥미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6, 21
47년생 기본적인 행위를 중요시해야 한다. 59년생 실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급하다. 71년생 머리를 써서 임하지 않으면 헛수고만 반복될 뿐이다. 83년생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5, 74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